

2018 다산컨퍼런스

포용적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노력 필요

글_본지 편집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앞서 이 개념은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 2015년·2017년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에 과총은 한국위험통제학회, 적정기술학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포용적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다산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다산컨퍼런스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석학을



▲ <그림 1> 과총은 한국위험통제학회, 적정기술학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포용적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다산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초청해 학술 토론과 더불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종합학술행사이다.

포용적 성장 위한 노력은 과학기술인의 책무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잘 이용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계가 포용적 성장과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시대적 책무이다. 의료, 복지, 환경, 재난, 안전 등에 대한 사회통합적 시각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연계하여 융·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경찬 다산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다산컨퍼런스는 4개 분야가 하나의 공동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 학제 간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자고 다짐하는 것의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포용적 사회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다산선언문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최신 연구 동향 공유 통해 정보 교류 촉진

첫 번째 기조강연은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이 ‘필요의 가치 만들기 :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을 위한 윤리적 의무’란 주제로 발표했다. 임마누엘 부총장은 미국의 사회비평가인 폴 굿맨의 ‘기술이 인간적일 수 있을까?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 도덕 철학의 한 분야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급격한 기술발전은 인간성을 교란한다. 현재의 위기는 근본적인 인문학의 복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기조강연은 키이스 앨버슨(Keith Alverson) UN 국제환경기술센터 소장이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환경 문제 : 공익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키이스 소장은 플라스틱 오염,



▲ <그림 2>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임마누엘 파스트라이쉬 부총장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인문학의 복귀를 강조했으며 두 번째 연사인 키이스 앨버스 소장은 현재의 환경문제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마지막 기조강연에 나선 성장모 초빙교수는 한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혁신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 <그림 3> 둘째 날 마지막 행사인 폐회식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다산결의문'이 발표되었다. 다산결의문에는 오늘날 인류문명이 직면한 지구적 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변화의 적응 등의 내용으로 현재의 환경문제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기조강연으로 나선 성장모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과제 : 청정에너지, 기후 작용 및 양성평등'으로 발표했다. 성장모 교수는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빈곤, 젠더, 청정에너지, 환경문제와 관련해 기술개발의 포괄적 성장과 취약계층의 참여 등 한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혁신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분과별 심포지엄 진행 후 다산결의문 발표

이어 진행된 분과별 심포지엄에서 1분과인 한국위험통제학회는 '효과적인 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과학

기술과 사회의 소통' 2분과인 적정기술학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과 과학기술', 3분과인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는 '환경과 농업 혁신을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4분과인 대한예방의학회는 '사회혁신과 과학기술-고령화 사회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 마지막 저녁 만찬 강연은 양수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한국 과학자 및 엔지니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수길 교수는 "포용적 사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루고,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가 한국에서는 아직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계의 노력과 이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둘째 날 전체 행사 마지막 세션인 패널 토론과 폐회식에서는 4개 주관학회의 과제책임자가 2018 다산컨퍼런스 성과에 관해 토론했고, 민경찬 다산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다산결의문(Resolution)'을 발표했다.

다산결의문에는 오늘날 인류문명이 직면한 지구적 난제 중 일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21세기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 구현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계 실천과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다산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다산결의문이 과학기술혁신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실천적 움직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